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주일 오전 11:00	부서예배 및 모임 (주일)	
저녁기도회	월-목요일 저녁 8: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0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1: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청 소 년 부	오후 1:00 마 리 아 회 오후 1: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청 년 부	오후 1:00 드 보 라 회 오후 1:00
	*월삭새벽예배 6:00		에 스 더 회 오후 1: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전임전도사 김진만 전임전도사 권인혁 협력전도사 오효남	파 송 선 교 사	강성규 (러시아)
		협 력 선 교 사	양병순 (카자흐스탄) 이금주 (미국)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장 로	유 신 응 (집사장) 김대희 박희태 조윤익 한배선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 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사무실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3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80 서울 동작구 서달로8가길 9 성우빌딩 402호 (흑석동 95-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 5:16)

Walk By The Spirit

실천사항 선교사의 삶 제자삼기(1인) 성경강론(1장)

삶의 방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개인에 대하여 : 성도에 대하여 : 문제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	--	---

암송구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전 예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69장 (통일찬송가 33장)
교 독 문	교독문 20번(시편 33편)
찬 양 과 경 배	288장 (통일찬송가 204장)
예 배 기 도	김대희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설 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임춘배 담임목사)
헌 금 드 림	김계모 김명옥 김혜숙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주를 위한 이곳에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요 예배 오후 8:00 예배장소 : 교회 사무실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말 씬 봉 독 장자를 대신하는 레위지파 (민수기 3장)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성경 암송 대회** 일시 : 6월 25일 주일
범위 : 2017년 성경암송구절 프린트 앞면
방법 : 작년과 동일하게 시험 형식
시상 : 1등 5만원, 2등 3만원, 3등 2만원
가산점 : 청소년부 이하와 바울 에스더 65세이상은 20~50% 부여
- 매일 성경 강론** 매일 저녁 8시 성경 강론과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보에 성경 강론을 위한 참고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용과 참여를 바랍니다. (월~금 주5일)
- 경오기도회** 매일 점심(12시30분)에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이용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체크하고 계시는 "기도문 읽기표"를 입당예배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준비 안내 및 정리**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고 청소 및 정리는 2시 30분 부터입니다. 오늘은 **분당셀**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안산셀**입니다. (정리 후에는 식당문을 잘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헌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025101-04-158561 예금주: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교회
입금 후 확인은 재정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석 집사 : 010-4333-6242)

2017년 성경강론 6월 셋째주 범위						
6/19	6/20	6/21	6/22	6/23	6/24	6/25
	민수기 1장	민수기 2장	민수기 3장	민수기 4장	민수기 5장	
※매일 저녁 기도회 : 월~목 저녁 8시(교회 사무실), 금요일 8시 30분(서울남부교회 4층)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임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찬송 :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통 369장)

본문 : 창세기 4장 9~15절

말씀 :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후 화가 났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화를 계속 품고 있다가 동생 아벨을 데리고 나가 죽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결과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아들에게서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육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병이 들었고, 그 아들 가인은 동생과의 관계에서 끔찍하게 파괴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가인에게 묻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9절) 동생 아벨의 행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의 양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돌아보아야 할 형제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주거나 괴롭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겐 복한의 우리 형제들의 형편을 묻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인은 뻔뻔스럽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9절) 자신이 동생을 죽이고도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을 찌르는 질문 앞에서 모른 척합니다. 그런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내가 돌아보아야 할 형제들에 대한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굶게 만든 것이 아니다’ 또는 ‘그것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문제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물으실 뿐 아니라 내가 그들을 내 형제로, 내 동생으로 돌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것 챙기는 동안 누군가는 잃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먹는 동안 누군가는 굶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앞서 가는 동안 누군가는 나를 원망하며 뒤처지기도 합니다.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함께 손잡아 주지 않았음을 마음 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내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읽어내야 합니다.

주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의 죄와 그 무거운 짐을 벗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내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이웃의 아픔을 내가 위로하고 싸매주며 주변의 우리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교회가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제목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갈2:20)

서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

- (1)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셨다.
- (2)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 (3)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본론

2. 교훈

- (1)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격하고 있는가?
- (2)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내 안에 사시고 계시는가?
- (3)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 고 단언할 수 있는가?

결론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김대희 장로	유신웅 장로
헌 금 위 원	김계모 김명옥 김혜숙	김계모 김명옥 김혜숙
안 내	분당셀	안산셀

매일 성경 강독	인구조사	날짜 : 6월 19일
----------	------	-------------

찬양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214장/통일 찬송가 349장)
통독	민수기 1장
본문 내용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해 군대를 조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선발해 모세와 아론을 돕게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세워진 열두 사람은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합니다. 인구조사 결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총 60만 3,550명입니다. 레위인은 인구조사에서 제외됩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은 대신에 증거가 보관된 성막을 지킵니다. 레위인은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성막의 기구들과 설비들을 관리, 운반하며 백성이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생각해보기	
1	<p>군대조직 편성</p> <p>(1) 출애굽한지 2년 2월1일에 가나안땅을 향해 떠나기 전 20세 이상 인구조사 실시</p> <p>(2) 능률적인 광야 여행 및 조직적이고 신속한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로서의 개편을 목적</p> <p>(3) 성막봉사를 위해 병역의무에서 제외된 레위인들</p> <p>(4) 성도는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 위업을 이루도록 부름 받은 거룩한 전사들이다.</p>
핵심 단어	<p>1:3 계수하되(קָנָה, 티프케두): 원형 '파카드' 의 기본 의미는 '아랫사람을 감독하다' 이다. 여기서 '방문하다' '돌보다' '계산하다' 라는 뜻이 파생되었다. 그런데 영어성경 에서는 이 단어를 110회나 '계수하다(number)'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헬라어 구약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이 용례 중 8회만 '계수하다'로 옮기고 나머지는 '조사하다' 또는 그와 관련된 의미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 단어가 단순히 '수를 세다'라는 의미보다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인원을 확인하는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 단어는 '계수하다'라는 번역보다 '검토하다'라는 군사적인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군대로서 감독하실 목적으로 그들을 친히 사멸하고 계신다는 뉘앙스가 있다. 반면에 2절의 '너희는 계수할지니'라고 번역된 '세우 에도 로쉬' 는 본문과 달리 문자 그대로 '머리를 세다' 라는 의미이다. 한편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성되는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에서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철저히 군사들을 관리하는 세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의 대적들과 싸워 연전 연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불순종하였을 때는 철저한 징계를 당했다. '군대'로서의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예표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없이는 결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거듭되는 실패를 막는 기념물”
찬양과 기도	거룩하신 성령이여 /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265장/통 199장)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p>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낮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겠다. 이 사람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회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내가 으뎠이라고 생각하거나 으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교만이 생활 속에 나타나면 유치한 인간이 된다. 교만은 친구와 헤어지게 하고 가족을 멀리하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떼어 놓는다. 교만은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의 반역이다. 옛날 지구에는 메가케로스란 학명이 붙은 거대한 사슴이 살았는데, 이 사슴이 멸종된 이유는 뿔이 지나치게 컸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기 뿔의 무게에 눌러 번식하지 못하고 자연 도태된 것이다. 감투에 눌러 자멸한 메가케로스의 비극이었다. 교만은 ‘나 자신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든다. 교만은 ‘내가 중심에 있다’라는 생각이므로 하나님을 외적으로 밀어내게 한다. 교만은 ‘내가 첫째다’ 하는 생각이므로 하나님을 자기 뒤에 두게 된다. 교만한 사람은 한마디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가슴에 달고 있는 손수건을 자랑하는 것과 같다. - 최효섭, 「명상록」(쿠팡출판사)</p> <p>교만의 결과는 결국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p>
말씀 나누기	민수기 16:36~50
목상포인트	문제를 악화시키는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발견'에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교훈을 얻고 다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망하는 사람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염병의 원인이 백성에게 있었음에도 자신들을 백성의 죄에서 분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느 1:6)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자마자 향로를 취해 백성에게로 급히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타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속죄하는 데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온 회중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에 모세와 아론은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적용하기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를 거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복하는 실수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이 제 위에 두신 권위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게 하소서. 실패할 때 원망이 아닌 회개를 선택하고, 실패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마음 깊이 새겨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속죄제	날짜 : 6월 23일
찬양	정결하게 하는 샘이 (찬송가 264장/통일 찬송가 198장)		
통독	민수기 5장		
본문 내용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문둥병자, 유출병자,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은 진 밖으로 내보내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은 죄를 자백한 후에 피해의 5분의 1을 더해 배상하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성적 부도덕에 대해 의심이 들 때 행한 규례입니다. 제사장은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두루마리에 저주의 말을 써서 쓴 물에 씻어 내고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여인이 순결하면 잉태하고, 간음죄를 지었으면 해를 당할 것입니다.		
생각해보기			
1	신앙공동체 유지의 법 (1) 부정한 자를 진 밖에 격리함으로 성결하게 유지함 (2) 이웃에 대한 죄를 범한 사람은 죄를 자복하고 손해배상과 속죄제를 드리게 함 (3) 배우자의 탈선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의심의 소제'를 드리게 함 (4)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해야 하며 성도들은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정결해야 한다.		
핵심 단어	5:22 아멘 아멘(אָמֵן אָמֵן, 아멘 아멘): '아멘'은 '확실하다', '믿다'란 뜻을 가진 '아만'에서 유래한 부사로서 '참으로', '진설로'란 의미이다. 아멘은 또한 말해진 것에 대하여 확실한 긍정의 응답을 한 것으로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라는 의미이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를 '좋습니다'로 번역하였다. 한편 축자는 여인이 두 번이나 '아멘'한 것에 대하여 한 번은 저주의 맹세에 대한 응답이고, 다른 한 번은 무죄임이 밝혀질 경우 누리게 될 잉태에 대한 제사장의 축복의 맹세에 대한 응답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단순히 제사장의 말에 대하여 완전히 수용함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진의 배치	날짜 : 6월 20일
찬양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가 298장/통일 찬송가 208장)		
통독	민수기 2장		
본문 내용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에 진을 칩니다. 동쪽에 유다, 잇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고 남쪽에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진을 치며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고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칩니다.		
생각해보기			
1	진영 배치도 (1) 효율적 행군과 휴식을 위해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각 지파를 배치시킴 (2) 동쪽에는 유다/잇사갈/스불론, 남쪽에는 르우벤/시므온/갓, 서쪽에는 에브라임/므낫세/베냐민, 북쪽에는 단/아셀/납달리 (3) 하나님의 군대는 명령에 따라 진 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해야 한다(34).		
2	성도들의 진영 (1)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회막을 향하여). (2) 개인적으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각각 자기의 진영). (3) 상호 협력해야 한다(가문의 기호 곁에).		
핵심 단어	2:9 그들은 제일대로 행진할지니라(וַיֵּצֵאוּ אֶת-בְּנֵי-יִשְׂרָאֵל מִבְּרֵית הַיַּדְּוָי, 러쇼나 엇싸우): '그들은... 행진할지니라'로 번역된 '잇싸우'의 원형 '나싸'의 일차적인 뜻은 '말뚝을 뽑다'이다. 이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 기거하는 장막의 말뚝을 뽑는 행위와 연관되어 '천막을 거두다', '이주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글성경의 번역처럼 단순히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제일대로'에 해당하는 '러쇼나'의 원형 '러손'은 '머리', '꼭대기'를 뜻하는 '로쉬'에서 파생한 말로 이는 장소적 의미 뿐만 아니라 순서나 시간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첫째', ' 으뜸', '처음' 등을 뜻한다. 이는 행진할 시 유다 진영에 속한 세 지파가 선봉에 서서 행군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이다. 이처럼 유다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주축이 되어 맨 앞에 서서 행진하는 영예를 누리게 된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다른 모든 지파들의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서고 다른 지파들은 유다 지파에 복종할 것이라는 야곱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다 지파나 유다 진영에 속한 지파들이 결코 싸움에 물러서지 않는 용맹스런 자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예로 유다 지파의 갈렙은 85세의 노령이 된 후에도 여전히 전쟁에서 용맹스러웠으며, 심지어 유업으로 받은 헤브론 곧 기랴트 아르바에 있던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를 물리쳤으며 드빌 곧 기랴트 세벨을 치기까지 하였다. 또한 유다의 후손 다윗도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 항상 승리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의 선두에 선 것은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메시아가 택하신 그의 백성들의 선두에 설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정녕 그리스도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선두에 서서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8장/통일 찬송가 369장)
통독	민수기 3장
본문 내용	아론의 네 아들들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제사장으로 구별됩니다. 그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하는 지파로서 성막 앞에서 제사장과 백성의 일을 돕습니다. 게르손, 고탕, 므라리 자손들은 각기 성막의 서쪽, 남쪽, 북쪽에서 성소의 직무를 담당하고, 모세와 아론은 동쪽에서 성소의 직무를 담당합니다. 레위인 중에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은 총 2만 2,000명입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총 2만 2,273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의 수가 레위인의 수보다 273명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초과하는 장자의 수에 대해 한 사람당 5세겔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생각해보기	
1	레위인의 구별과 직무 (1) 레위 지파는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구별됨 (2) 레위 자손들은 일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함 (3)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성별된 영적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
2	레위 각 가문별 직임 (1)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외형을 이루는 천막과 휘장등을 운반 관리함 (2) 고탕 자손은 성막의 주요 성물들을 운반 관리함 (3) 므라리 자손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목재류등을 운반 관리함 (4)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 받은 성도들은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고유한 역할을 분담 받아 각양의 모습으로 봉사하며 주안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핵심 단어	3:12 내가...레위인을 택하여...하였은즉(נִתְּנָה לְלֵוִי וְאֵינִי לְרִאשׁוֹן לְאֵת הַלְּוִיִּם): '택하여'에 해당하는 '라카흐티'는 '잡다', '취하다', '빼내다'란 뜻이 있는 '라카흐'가 기본형이다. 본문에서 '라카흐'가 완료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취하여 당신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선택하신 일이 불변의 사실로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라카흐티'가 1인칭 동성 단수형이므로 주어가 1인칭 화자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이라는 뜻의 '아니'란 1인칭 대명사를 다시 한 번 기록하여 준 것은 레위인을 택한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가운데서 장자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그들에게 성막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애굽에서 임종을 앞둔 야콥이 레위에 대해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출애굽 이후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 숭배로 인하여 빛어진 민족적 범죄를 척결하는 데 레위 지파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 봉사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다. 위의 두 가지 설명은 모두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고 성막 봉사자로 레위인들이 선택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라카흐티'에 대한 문법적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라카흐'라는 동사가 미완료형이 아닌 완료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택하여 그들로 이스라엘의 영적 강자로 삼으신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을 선택한 것은 다른 어느 누구의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내가'라는 뜻의 '아니'란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던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가 347장/통일 찬송가 382장)
통독	민수기 4장
본문 내용	하나님은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30~50세까지의 고탕 자손의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고탕 자손은 제사장을 도와 성막 안의 지성소를 관리해야 하는데, 성물에 절대 손을 댈 수 없고 성물에 채를 끼워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30~50세까지의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의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들을 운반하는 일, 므라리 자손은 성막의 구조물과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회막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30~50세까지의 고탕 자손은 2,75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므라리 자손은 3,200명입니다. 이로써 회막 봉사와 성물을 운반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30~50세까지의 레위인은 총 8,580명입니다.
생각해보기	
1	고핫자손 성물 운반 지침 (1) 모세와 아론 가문인 고탕 지파는 중요한 성물(법궤,금촛대,분향단,금잔 등) 운반 말씀 (2) 이 지성물들은 고탕자손이 포장할수도 풀수도 없고 오직 아론의 제사장들만이 할수 있음 (3) 제사장들이 해달의 가죽과 여러 가지 보자기로 포장하면 고탕 자손들이 수레를 사용하지 않고 막대기로 꿰어서 어깨에 맨 다음 운반했다. (4)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며 힘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
2	게르손, 므라리 자손 성물 운반 지침 (1) 고탕자손의 임무보다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듯하게 보이지만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것을 운반함 (2) 장막의 말뚝, 휘장들을 직접 포장하고 풀 수 있었고 수레를 사용함 (3) 모든 임무는 다 소중하며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일꾼)'같이 봉사해야 한다(벧전4:10).
핵심 단어	4:10 메는 틀(מִתְּלֵי, 함모트): '그' 라는 뜻의 정관사 '하'와 명사 '모트'가 결합된 형태이다. '모트'는 기구를 운반하기 위한 '들것' 혹은 '멍에'를 뜻한다. 이것이 필요하게 된 까닭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라도 성물을 직접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위인들이 성물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옮길 수 있도록 '메는 틀'이 고안되었다. 결국 메는 틀을 사용하여 등대와 그 모든 기구들을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말고 운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자신의 거룩과 영광을 침해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